

전남 첫 대규모 통합운영학교 신설 '성큼'

황금초·중 통합운영학교 신축 용역 최종보고회

광양 황금지구 2026년 개교 목표 "신도시 개발 교육여건 개선 기대"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계준)이 지난 19일 (가칭)황금초·중 통합운영학교 신축 사전기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2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양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0월 광양시 황금지구내 신축학교 설립 승인에 따라 초·중 통합운영학교를 신축하고자 올해 3월부터 사전기획을 추진해 왔다.

도교육청은 물론 유관기관 관계자, 관내 교직원, 지역주민(학부모) 등이 참여

하는 사전기획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회를 열고, 타 지역 학교에 방문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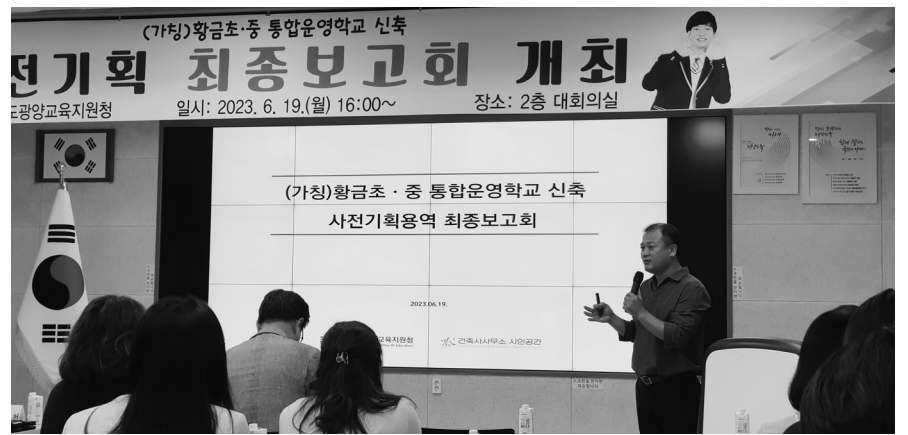
(가칭)황금초·중 통합운영학교는 2만㎡ 부지에 총사업비 597억 원을 들여 47학급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광양 황금지구는 오는 11월부터 공동주택 4629세대의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학교설립이 시급했다.

지난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가칭)황금초·중 통합운영학교 설립안이 승인돼 도교육청은 행정절차를 마무리짓고 본격적으로 학교설립에 나섰다. 계획대로 오는 2026년 3월 개교할 경우, 전남의 대표적인 신도시 개발지역인 광양 황금지구의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날 사전기획 용역사(건축사사무소 시인공간)에서 사전기획 협의체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가칭)황금초·중 추진 개요 △현황 분석 △교육방향 설정 △사용자 참여 디자인 △건축디자인 기본방향 등 공간기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이계준 교육장은 "이번 사전기획에서 교육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황금지구 입주 예정 학부모



광양교육지원청이 지난 19일 오후 4시 (가칭)황금초·중 통합운영학교 신축 사전기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님 등 다양한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만든 결과물을 보니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 전남에서 대규모 통합운영학

교 신설이 처음인 만큼 신설 추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 lotus@jinilbo.com

광주교육연수원, 학교로 찾아가는 사제동행 진로교육

'영상 제작 달인' 등 체험교육 사제간 행복한 학교생활 목표

광주교육연수원이 관내 중학교 교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선생님과 함께 키우는 나의 꿈 나의 미래 1기' 과정을 실시했다.

20일 광주교육연수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학생의 진로 탐색과 사제 간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주요 목표로 기획됐다. 연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접근성을 높이고자 학교가 '영상'과 '색채' 중 희망하는 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영상' 분야 연수는 ' 지금은 유튜브 시대, 영상(쇼츠)제작의 달인 되기'를 주제로 구성됐다. △영상 분야 진로의 탐색 △쉽고 재미있는 영상제작 △나만의 쇼츠 영상 제작 △너와 나의 작품 공유 등의 내용으로 쉽고 참가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현직 영상제작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를 초빙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학생들은 직접 만든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교육연수원이 관내 중학교 교원 및 학생 대상으로 지난 5월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선생님과 함께 키우는 나의 꿈 나의 미래 1기' 과정을 실시했다. 사진은 경진중에서 진행된 영상 연수의 모습. 광주시교육청 제공

'색채' 분야 연수는 '색채로 보는 나의 세상, 내가 꿈꾸는 미래'가 주제였다. 참가자들은 △컬러테라피와 색채심리 △집중력 강화 인테리어 색채 △색채를 통한 나의 진로탐색 △함께 그리는 컬러그림 △스트레스 치유 컬러테라피 △나만의 탄생 아로마 등을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영상 분야 교육에 참여한 광주무진중 김호준 학생은 "스스로 나만의 영상을 만들어 성취감을 느꼈고,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영상제작에 흥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꿈의 선택지에 크

리에이터를 생각해 보게 되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말했다.

채경숙 광주교육연수원 원장은 "이번 진로교육이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자기와 타인을 이해하고 사제 간의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이었으면 한다. 이번 활동을 통해 사제간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교육연수원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분야를 발견하고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기람 기자

전남도교육청, 1기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 운영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닷새 동안 1기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아카데미는 2024년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대입 지원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전남에 문을 연 5개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포털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한 150명(센터별

30명)의 학부모가 참여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2024~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이해 △대학 입시 용어와 입시정보의 탐색 방법 △전남대 입학 전형의 이해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교육과정의 이해와 전국연합 모의고사의 이해 등이 다뤄진다.

9월에 실시하는 2기 아카데미에서는 초·중등 자녀를 둔 학부모에 초점을 맞춰 △인공지능 세대를 위한 진로·적성 탐색 △고교 분석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대입 연계 안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양기람 기자

광주자연과학고, 전통복원 손모심기 행사 개최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가 20일 오후 한해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 농사기원제와 손모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본교 서편에 마련된 실습부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최범태 교장과 교직원, 풍물패 단원, 식물과학과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생과 교직원들은 모심기 행사에 앞서 농민의 근심을 씻어내는 '풍년 기원제'를 올렸다. 또 대풍을 주제로 한 길놀이 공연, 이 학교 사물놀이 풍물패 '대동세상'

의 농악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모심기 행사에는 교직원과 재학생이 참여해, 2시간 동안 약 200평의 논에 못줄을 피고 모를 심었다.

최범태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교장은 "오늘 손 모심기는 영농을 건국이념으로 내세운 본교의 단절된 전통을 학생들 힘으로 복원한 뜻깊은 행사이다"며 "어려운 농촌 현실이지만 오늘 행사를 통해 어느 때보다 대풍을 이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유지/보수관리

문암(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274
TEL:062)714-3471 FAX:062)714-3472